

“근본불교는 교학연구 토대”

종교학회 불교분과 '아함불교 바로알기' 워크숍

원사-초가-근본불교등 명칭통일 논의 제과학 이론접목 응용연구 절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콜로키움에서 권오민 교수(경남대)는 <아함경>을 비롯한 모든 부처님 말씀은 역사문화적 산물이기에 각각의 우열을 논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학 이론과 개념을 접목시키면서 응용적 혹은 문제해결식의 연구를 지향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는 사회정의와 소외문제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과 생명윤리 문제 등을 안고 있고 불교의 교육목적 실현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해결을 도외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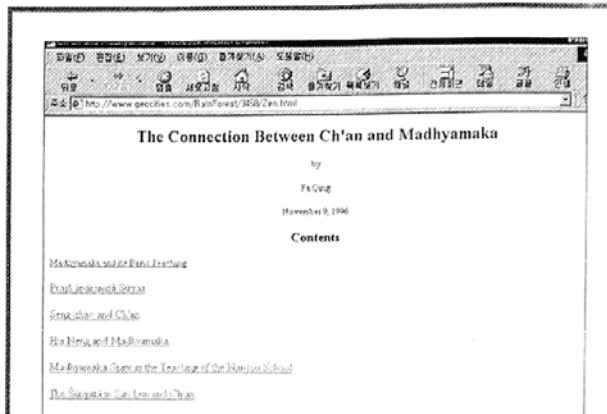
윤원철 교수(서울대)의 사회로 진출한 세 번째 콜로키움에는 학담스님(대승사 주지)의 아함불교에 대한

신에 대해 시선을 두고 있었다. 불교학자들도 불교 그 자체에 시선을 두지 말고 불교 공부하는 자기 자신의 사고방식, 문제의식에 시선을 뒤야 한다. 그렇지 않고 중생들의 사유방식 틀로 불교 보려하기에 갈등과 모순 구조로 가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콜로키움을 마치고 가진 평가에서는 일부 교수들의 논지 싸움으로 원래 토론의 목적에서 벗어나고 국지적인 논의로 치우쳐 아함불교를 전반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는 의도에서 벗어났다는 등 첫 워크숍으로서 진행 미숙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와 함께 교리공부와 수행체계를 같이 접목시켜야 된다는 주장이 나와 학문으로 불교를 볼 것인가 불교를 수행과 결부시켜 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 또 열반은 고의 소멸인가 생존의 소멸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뤄져 이후 논란거리로 제시됐다.

해수님은 "아함불교라는 것의 전체 틀을 바라보고 개괄적인 소개를 해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처음 치루는 워크숍이어서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동계 워크숍은 이번 워크숍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시행착오를 거름삼아 무리없도록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 '불교세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선불교 관련 정보화면.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중국·대만불교

선불교를 개창한 중국불교의 오늘을 보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중국·대만계 불교사이트를 검색하면 된다. 현재 중국 선불교의 모습은 중국이 아닌 미국과 유럽 그리고 대만에서 그 맥을 찾을 수 있다.

▲선불교 교우회 (Chan Buddhist Fellowship)는 유럽에서 중국·대만불교를 알리는 단체로, 첸(Chan)이란 선(禪)의 중국식 발음표기.

이 사이트를 개설한 존 크록씨는 성업스님(대만)의 법제자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중국불교개관' '수행관' '권장도서' '전자잡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선불교 교우회가 제공한 정보 중에서 법문, 선시, 선불교교우회의 활동과 관련된 사진 등이 실려있는 전자잡지인 <선광장(New Chan Forum)>과 중국 선불교의 법제도 등이 불자네트즌의 호기심을 충분히 충족시킬 정보이다. 또 뉴욕·캘리포니아·대만 등지에서 중국불교의 포교에 노력하는 선(禪)센터와의 링크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미국불교회(The Buddhist Association)는 중국불교학에 관심을 가진 중국계 미국인계 모임인 리하이 불교클럽에 기원을 두고 1987년에 설립된 펜실베이니아 지역의 중국불교계 학술·신학 단체.

이 사이트는 펜실베이니아의 장엄사를 본부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불교회의 회의, 포럼, 법회 등의 자료와 전자뉴스레터를 제공한다. 또 한문장경을 연구하는 모임인 불교전자사공덕회(佛敎電腦資訊功德會·The Electronic Buddhadharma Society)의 학술자료도 제공한다. 이 자료는 일부 샘플만 제공하고 있는데, CD 타이틀을 구매하면 전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국제불광회(Buddhas Light International Association)는 대만 불광산의 성운스님이 설립한 국제적인 선행단체이다. 이 사이트는 서래사(Hsi Lai Temple)를 중심으로 미국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불광회를 홍보하기 위한 사이트. 서래사는 15에이커에 세워진 사찰로 미국에서 가장 큰 사찰이다. 1978년에 시작, 1988년에 완공된 이 사찰은 국제 불교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중국의 전통적인 사찰 양식 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 태국, 이태리 등 세계 여러 나라의 건축 양식을 보여줘 관광사찰로도 유명하다.

▲불교세계(The Buddhist World) 사이트는 인터넷을 통해 대만불교계의 사회단체, 경전전산, 불교계 뉴스, 사찰소개 등의 다양한 정보를 영어와 중국어로 각각 제공한다. 이 사이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정보는 '자재공덕회' 이 모임은 대만 불교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불교재단으로 대만 국내·외에서 평가받고 있어 불자 네트즌이 한 번쯤 방문해 볼 가치가 있다.

이외에도 채식주의자를 위해 냉수식을 비롯해 9가지 채식에 관련된 요리법을 세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또 중국·대만 불교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고 있다.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pia.com)

- △ 선불교교우회 <http://www.child.demon.co.uk/wcf/>
- △ 미국불교회 <http://dual/iems/nwu.edu/~cwshen/buda-ebis.html>
- △ 국제불광회 <http://www.clcr.com/hsilai/blia.html>
- △ 불교세계 <http://www.geocities.com/rainforest/3458/zen.html>

“마츠모토의 임제선 이해 화두 박제화등 오류 많다”

고려대장경연구원 '비판불교' 3차 세미나

'마츠모토의 임제선 비판은 급진적이지도 참신하지도 않은 오해일 뿐이다. 임제선사가 설했던 무위진인(無位真人)이 아트라파 같다는 그릇된 전제하에 임제선의 모든 사상을 추론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것이 무위진인을 통박대기와 단절시켜 실제화하는 치명적인 원인이 된다.'

10일 동국대에서 열린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스님)의 비판불교 3차 세미나에서 김영욱 연구원(가산불교문화연구원)은 '마츠모토의 임제선 이해에 대한 비판'을 통해 '마츠모토의 논리는 화두로 제시된 모든 언어를 박제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임제선의 본래 목적에서 볼 때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불성내재론이나 불성현재론은 선종에서 실천지향적으로 제시된 화두로서의 불성을 주관과 객관에 대하여 절대적 지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잘못을 범했다'고 주장했다.

종호스님은 논평에서 "임제선의 핵심이 무위진인에 있다는 점은 마츠모토와 김 연구원이 모두 간과하고 있는 점"이라며 "무위진인은 조사들의 사상적 계승이자 수행자에게 주는 방편의 가르침이었으며 중생의 고통을 위로하고 희망을 주기 위한 조사선자로서의 현실적 실천행"이라고 지적했다. 김호규 강사(동국대)는 '마츠모토 시로의 도오전사상에 대한 견해 검토'에서 "마츠모토는 도오전의 본각사상을 불성현재론(佛性顯在論)으로 파악해 불성내재론의 입장에 서있는 심상상멸설(心常相滅說)의 선리(선)의 의의와 견해를 비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불성을 존재의 본성적인 활동 내지 작용이라고 해석하는 도오전은 일체 중생 그대로가 불성의 실유이고 현현이라는 입장이기에 불성현재론은 도오전의 이해로 본다면 불성현작용이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논평을 맡은 윤희스님은 "마츠모토는 도오전 연구의 전문학자가 아님을 인정하는 등 이 논문 자체를 비판적 검토의 대상으로 선정할 가치가 있는지 의구심이 생긴다"고 말했다.

신라인에게 불교는 무엇인가

김상현 교수 '신라의 사상과 문화' 펴내



신라인들이 생각했던 삶의 가치와 희망은 무엇이었으며 현실의 위기와 고통을 어떻게 해결하려 했는가. 당시의 불교는 고뇌하는 신라인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었는가. 불교사를 강의하는 김상현 교수(동국대)가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20여년 동안 발표했던 신라사상사에 관한 논문 20편을 정리해 최근 발간한 <신라의 사상과 문화>(일지사 펴냄)는 신라인들이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불교 신앙을 활용했고 새 미래에 대한 열원은 미륵신앙을 통해 표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책은 불교사를 불교철학에 입각하거나 당시의 정치 사회학과 연계시켜 연구되어온 성과물들이 많이 있었던데 비해 종교사적인 시각으로 조명해 놓은 논문이 묶여 나온 적은 거의 없었기에 주목받고 있다.

<신라의 사상과 문화>는 신라의 정치사상, 삼국통일의 사상적 기반, 불교사상의 사회적 전개

불교문화와 화랑정통 등 총 4부로 이루어져 신라의 전반적인 사상과 문화를 조명하고 있다. 특히 석굴암과 불국사를 불교문화사 혹은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문화예술의 밑거름으로써의 신라불교를 규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워크숍

뉴욕 스토니브룩대서

국제원효학회(회장 송석구 שלי스트럼 케니)는 7월31일부터 8월2일까지 미국 뉴욕 스토니브룩대학 교에서 원효전서 영역 편집자회의 및 워크숍을 개최한다.

21권에 달하는 원효전서 영역 작업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국제원효학회는 이번 편집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편집 규정이나 영역예규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찰스 물러 교수(도모가쿠엔대), 존 백래이 교수(인디애나주립대) 등 번역자들이 참석할 이번 편집자 회의

를 통해 결정된 규정 등을 기준으로 내년 3월쯤 영역 결과물을 선보일 예정이다. 내년엔 대규모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강좌 미술사' 12호 발간

한국불교미술사학회에서 <강좌 미술사> 12호가 발간됐다. 12호에는 △불국사 불교미술의 종합적 연구-문명대 △용주사 삼불회당의 연구-김경실 △동해시 삼화사 칠불 명문의 재검토-김창호·한기문 △원우5년(1090)명 일석사 마애불화상 소고-임영애 △영정조시대의 불화-김창균 △고구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간	화 화 수 목 금 토 일	일요일	시간
05	00 이원재 (송가대 스님)		05
	45 마운준 비우고 (이명환ANN)		
	00 교계뉴스 (장수현ANN)		
06	05 경의공부 (원호스님)		06
	25 고승명 (고민 스님)		
	35 교계뉴스 (이명환ANN)		
	55 선생365원 (김용환)		
07	00 뉴스 (장수현)		07
	10 원효전서 영역? 통승기념이다 1부 (이명환ANN)	05 일요교양강좌(교양재민)	
	00 HHS 뉴스 (장수현/장수현ANN) (08:25-08:30 L)	00 불교의 승려(교계뉴스)	
08	10 원효전서 영역? 통승기념이다 2부 (이명환ANN)	05 원효전서(원효ANN)	08
	15 교계뉴스 (이명환ANN)		
09	00 뉴스 (이명환ANN)		09
	05 차관위원회 (원효스님) / (산) 귀족한민(원효스님)		
	00 뉴스 (이명환ANN)		
10	05 의리의 편지 (원효ANN/해경스님)	00 라디오 법회(이명환ANN)	10
	25 마애전서(원효) (장수현)		
	45 교계뉴스 (김용환)		
11	00 뉴스 (이명환ANN)		11
	10 불교뉴스 (이명환ANN)	05	
12	00 정호준의 법회(이명환ANN) (12:15-12:20 L)		12
	20 의명준의 법회(이명환ANN)	10	
13	00 뉴스 (이명환ANN)		13
	05 의명준의 법회(이명환ANN)		
14	00 뉴스 (이명환ANN)		14
	10 뉴스 (이명환ANN)		
	15 교계뉴스 (이명환ANN)	05 우리나라의 향기(송재현)	
15	00 뉴스 (이명환ANN)		15
	05 HHS 생활정보(이명환ANN/원효스님) (L)	05 권수환사 (이명환ANN)	
	15 교계뉴스 (이명환ANN)		
16	00 뉴스 (이명환ANN)		16
	10 은의미주 (이명환ANN) (L)	05	
	05 교계뉴스 (이명환ANN)		
17	10 부활을 앞두고 (이명환ANN)	20 원효전서 (김재경)	17
	15 HHS (이명환ANN)		
18	00 원효전서 (이명환ANN)		18
	15 원효전서 (이명환ANN)		
	00 HHS 뉴스 (이명환ANN/원효스님)	05 그리움(원효스님)	
19	25 원효전서 (이명환ANN)	10 불교뉴스(장수현)	19
	55 원효전서 (이명환ANN)		
20	00 교계뉴스 (이명환ANN)		20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10 뉴스 (이명환ANN)		
	15 교계뉴스 (이명환ANN)		
21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21
	25 원효전서 (이명환ANN)		
	40 원효전서 (이명환ANN)		
22	00 교계뉴스 (이명환ANN)		22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10 뉴스 (이명환ANN)		
23	00 원효전서 (이명환ANN)	05 그리움(원효스님)	23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00 그리움(원효스님)	
24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24
	10 원효전서 (이명환ANN)		
01	05 원효전서 (이명환ANN)		01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BBS 불교방송

◎ 주소 : ☎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 후원회 : (02)705-5560-1 ◎ 방송참여 : (02)705-5555~8
 ◎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 FAX : (02)705-5229